

## 펼쩍펼쩍 뛰며 놀자고 보채는

이영광  
시인

할인 행사 개업 행사나 떨어하는 데 줄 서서 기다렸다가 뭘 사는 걸 좋아합니다. 명당이라는 로또 가게 앞에 둥글게 띄리 튼 긴 줄도 좋아하고요. 험한 곳에 있을 때면 다 같이, 조금 덜 험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 평생 유리했어, 어딘가 늘 한 자락 여유가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싫습니다. 어쩐지 쌈마이로, 비싸 보이는 거요. 나 평생 불리했어 어디에도 한 자락 여유가 없었어, 하는 생각이었으면 좋겠소…… 하지만,

진짜진 몰라요. 유리하게, 조금 쪼들렸던 거 비싸게 군 거겠지. 지난날, 지난날을 꿈처럼 살아서 아마도 노후는 화성 같겠지만 노후라니, 내가 노후를 생각하게 된 게 어딥니까. 사는 덴 어디라도 비비고 기댈 덜 아픈 언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쩌다 시만 좀 쓰려고 하면 이런 생각들이 스르륵 사라져요. 불리한 곳, 비빌 데도 기댈 데도 없는 곳에서 유실된 말이 아니면 금방 싫증이 난다는 건데……. 사실 사라짐도 싫증도, 여유가 있어요. 땡땡거리면서,

하품하면서, 비명 아니면 신음만 듣다가 또 하루가 갑니다. 안 비싸지질 못하고 빈둥거리다가, 쌈마이로 태연히 저문다는 거예요. 나는 대책도 무대책도 없는데, 시는 늘 펼쩍펼쩍 뛰며 놀자고 보채는 아이 같지요

### •이영광

1998년 『문예중앙』으로 등단. 시집으로 『그들과 사귀다』 『나무는 간다』 『끝없는 사람』 등이 있다.